

대학도서관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운영 현황 분석 연구

Current Practices of the Customized Bibliographic Instructions in Academic Libraries

정미정 (Mijung Jung)*

권나현 (Nahyun Kwon)**

초 록

본 연구는 현재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국내 대학도서관 맞춤형 이용자 교육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요건과 장애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전국 4년제 대학 중앙도서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여 총 206개관의 웹사이트에서 맞춤형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한 후, 설문지법을 통해 교육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설문에 응답한 총 149개관 가운데 94개관(63.1%)에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55개관(36.9%)에서는 해당 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국내 대학도서관 맞춤형 교육은 예산, 사서 수 등 도서관의 가용자원이 많을수록 더 활성화되어 있었으며, 사서의 자질 중에서는 학력, 전공 등과 같은 능력보다 봉사정신이 교육 운영 활성화에 더 영향력 있는 요소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도서관 실무자들에게 맞춤형 교육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후속 연구의 토대가 되는 기반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practices of the customized bibliographic instructions (CBI) at four-year academic libraries in Korea. Among the entire 206 academic libraries, a total of 149 libraries participated in the survey. Study result shows that the libraries providing CBI was 63.1%. The findings of the study revealed the overall picture of the CBI operated in Korean academic libraries.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ed useful strategies to apply in adopting and operating the CBI in academic libraries in Korea.

키워드: 맞춤형 이용자교육, 맞춤형 교육, 맞춤형교육, 정보활용능력, 이용자교육, 대학도서관
customized bibliographic instructions, customized library instructions,
user education, information literacy, academic libraries

*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mjjung3081@naver.com) (제1저자)

** 명지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nahyun.kwon@gmail.com)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4년 5월 23일 ■ 최초심사일자: 2014년 5월 28일 ■ 게재확정일자: 2014년 6월 22일
■ 정보관리학회지, 31(2), 99-119, 2014. [http://dx.doi.org/10.3743/KOSIM.2014.31.2.099]

1. 서론

오늘날 정보환경이 급변하면서 대학도서관 환경 역시 전자도서관의 출현, 다양한 전자자료 및 DB의 등장, 최첨단 장비와 기술의 적용 등을 특징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도서관의 정보 환경뿐만 아니라 이용자 측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 되고, 전자도서관이 구축되면서 이용자는 시·공간이라는 물리적 조건에 제한받지 않고 다양한 정보와 지식에의 접근이 용이해졌다. 이러한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 구성원들이 복잡한 지식정보세계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를 잘 찾아 그들의 학습과 교육, 연구 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대학도서관의 역할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해 졌다.

본래 대학도서관은 대학과 사회에 기여할 목적을 가진 기관이며, 학생과 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대학구성원들의 지식정보 함양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기관이다(윤희운, 2013). 「도서관법」 제35조에 제시된 대학도서관의 법정 업무에서는 구체적으로 '효율적 교육 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대학 구성원들의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은 대학도서관만의 특징이자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정보활용능력 함양과 교육 및 연구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교육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용자는 여전히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부족하며, 교육의 만족도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역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백항기, 2001; 최은주, 박남진, 2005). 또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은 홈페이지나 안내자료에는 이용자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은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제환, 2011). 이와 같은 문제들은 현재의 이용자 교육이 이용자가 당면한 과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 수혜자의 입장에서 교육 내용이 구성되지 못하고, 여전히 도서관 사서의 입장에서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교육에 대한 이용자의 무관심과 낮은 참여로 이어지며, 이용자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부 국내 대학도서관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이용자교육(Customized Bibliographic Instruction)은 이와 같은 기존 이용자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이용자 교육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맞춤형 이용자교육은 이용자로부터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그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서가 교육을 설계·제공하는 교육방법이다. 맞춤형 교육은 Keller(1979)가 개인의 학습 동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한 ARCS이론 즉, 주의집중(Attention), 관련성(Relevance), 자신감(Confidence), 만족감(Satisfaction) 측면에서 이용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동기부여 및 흥미유도에 있어 취약했던 기존의 이용자 교육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일부 대학도서관이 이러한 맞춤형 이용

자교육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와 내용 등 구체적 현황이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관련문헌을 보면 의학도서관에서 '맞춤교육'이란 용어로 소개되어 교육 모형이 제안된 바 있으며(김나원, 2008), 실제 한 대학도서관의 현장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남재연, 2012). 그러나 대학도서관 맞춤형 이용자교육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고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도서관이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그 현황을 토대로 해당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요인과 이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대학도서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2. 문헌 연구

2.1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개념

도서관 이용자교육의 한 유형인 맞춤형 이용자교육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는 현상으로, 아직 그 개념이 분명히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학 분야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와 개념을 살펴보고,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그 개념과 범위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학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맞춤형 교육은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려는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자가 학습자의 흥미, 준비도, 선호도 등과 같은 다양한 특성을 수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때 학생이 가장 잘 배운다는 전제를 근거로 한다(Tomlinson, 2005).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맞춤형 교육'이라는 용어 이외에도 '맞춤형 학습', '개별화 수업', '개별화 교육'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박성익, 2008; 최승현, 조성민, 류현아, 2012).

맞춤형 교육은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교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예컨대 최승현, 조성민, 류현아(2012)는 초등학교에서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학생의 학습 부진 정도를 판별하기 위한 평가 도구와 학습 부진을 지도하기 위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김혜진, 목희정, 홍정임, 남궁신아(2012)는 철결핍성 빈혈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 영양사가 면대면으로 맞춤형 영양교육을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환자의 임상 지표와 임상 자각 증상 및 영양섭취 상태가 개선되었고 빈혈 치료와 예방에 효과적임을 밝힘으로써 식품영양학 분야에서의 맞춤형 교육의 적용사례를 보여 주었다. 이현지, 김혜영(2012)은 고도비만 실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적용하여, 단기 초절식 일대일 비만 관리 프로그램과 식생활 교육을 시행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데 활용하기도 하였다.

국내 도서관 현장에서는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맞춤교육', '맞춤형 학술정보교육', '신청교육', '수시교육' 등의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정미정, 2014). 맞춤형 이용자교육은 이용자가 자신의 특정 필요에 의해 도서관측에 교

육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요청함으로써 제공되는 이용자교육으로, 내용적으로는 정보활용 능력(information literacy) 향상을 위한 정보활용교육의 한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강의연계교육'이나 '개별교육'과 같은 맞춤형 교육 유형이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정보활용교육'이나 '정보검색교육'에 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문헌정보학에서의 맞춤형 이용자교육은 앞서 살펴본 타 분야와 공통된 속성도 갖고 있지만, 이용자의 요청을 토대로 맞춤형 교육을 설계·제공한다는 점에서 피교육자의 능동성과 자발성을 매우 중요한 특성으로 갖고 있다.

국내 대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명칭과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유형으로 요약되는데, 첫째 유형은 '강의지원교육', '수업연계교육'이라는 명칭 아래, 교수의 신청에 의해 수업관련내용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강의연계교육'이다. 둘째 유형은 '그룹교육', '소규모교육', '출장교육'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데, 1인 이상의 학생이 개별적으로 요청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수업과 직접적 연계를 갖지 않는 '개별교육'이라 할 수 있다.

외국에서도 이용자의 요청을 기반으로 피교육자의 구체적 요구와 수준에 맞추어 제공되는 '맞춤형 이용자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이 이미 훨씬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공되어 왔다. 단지 '맞춤형'이라는 용어를 외국 도서관이나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그간 이용자교육이 미약했던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21세기 정보활용교육 시대에 맞춰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용자의 개별적 교육요구에 부응한다는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맞춤형'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부여함으로써 생긴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 대학도서관의 맞춤형 교육도 국내와 유사하게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첫째 유형은 교수진과의 협력을 통해 수업과 연계되어 제공되는 형태로, 통합 이용자교육(integrated user education), 혹은 교과연계교육 또는 강의연계교육(course-related instruction)이라 불린다(Fleming, 1990). 둘째 유형은 학생 개개인의 요청에 따라 수업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개별교육(one-on-one session, one-on-one reference appointment)이다(Kappus, Jenks, & Pauw, 2011).

본 연구에서는 그 명칭을 "맞춤형 이용자교육"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국내외 문헌과 실제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을 반영하면서 이용자 요구에 초점을 둔 심화 교육임을 표현한 것이다.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1) 이용자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2)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교육을 요청하였을 때, (3) 사서가 요청 내용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전공을 비롯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설계하여 제공하는 이용자교육'으로 정의하였다.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유형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와 같이 크게 '강의연계교육'과 '개별교육'으로 대별하였다.

2.2 맞춤형 이용자교육 연구동향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맞춤형 이용자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이를 집중적으로 탐구한 국내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김태경(2005)의 연구에서와 같이 대개 이용자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학문 영역별, 주제 분야별로 각기 다른 이용자의 행동적 특성에 맞출 것을 주장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비교적 최근, 김나원(2008)의 논문에서 부분적이지만 최초로 맞춤형 이용자교육이 문헌에 등장했다. 이 연구는 의과대학 교직원과 대학원생을 위한 도서관 이용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맞춤교육'을 제시했는데, 이용자가 교육을 신청하는 유형이므로 정기교육에 비해 교육 대상자가 명확하다는 점을 이 교육의 주요 특성으로 꼽았다.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실제 사례를 소개한 남재연(2012)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교육 대상별 운영 사례를 보여 주었다. 소개된 바에 따르면, 교과목 담당 교수나 학생의 요청으로 교육을 제공할 경우, 피교육자의 학년, 전공, 교과목내용, 기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의 수준과 내용을 다르게 구성하고 있었다. 교육 후에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만족도를 학생들로부터 피드백 받아 차후 교육에 반영하는 과정이 소개되었다. 저자는 맞춤형 이용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기존의 다른 이용자교육보다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2.3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다양한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가운데 강의연계교육에 대한 연구는 1976 LOEX 회의에서 처음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Kirk, 1999). 이 회의 이후 강의연계교육의 효과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1980년대까지도 대학도서관 서비스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 정보활용능력의 급부상에 힘입어 그 위치를 굳히게 된 것으로 보인다(Kirk, 1999).

특히 Oberlin College Library 사례는 1990년대에 이용자교육 관련 서비스의 발달배경을 잘 보여준다. 이 시기는 이용자교육에 대한 요구 증가, 참고서비스 적용의 변화, 연구 지원 및 상담 서비스(research appointment)에 대한 요구 증가, 대학생의 정보 행동 변화, 도서관의 물리적 환경 변화 등과 같이 여러 환경적 변화가 총체적으로 시작된 때로, 이 대학에서는 수업연계 교육인 'First Year Seminar Program(FYSP)'과 연구 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Mitchell, Comer, Starkey, & Francis, 2011).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교육 담당사서들에게 교수법 훈련 부족과 교육경험 부재 등과 같은 부분에서 한계를 보였다. Oberlin대학 등에서 경험한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의 결실로 나타난 것이 미국대학연구도서관협회(ACRL)의 Institute for Information Literacy(IIL) 설립으로, 이를 통해 교육과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사서양성 워크숍이 제공되었다(Kirk, 1999; Oberman, 1998).

효과적인 이용자교육을 설계하기 위한 노력으로, 성공적인 이용자교육에 필요한 조건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Rader(1995)는 대학 교과과정으로 도서관과 정보활용교육이 성공적으로 통합되기 위한 세 가지 요인에 대해 언급하였다. 첫째, 도서관 행정가는 교과과정으로 도서관교육을 통합하기 위하여 장기간 헌신해야 하며, 둘째, 사서와 교수진은 교과과정 발전에 협업하고, 셋째, 대학은 학생들을 위한 비판적인 사고, 문제 해결, 정보 기술의 영역에서 훌륭한 교육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헌신

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Winner(1998)는 교육 담당사서를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 업무시간의 유동성을 통한 교육투입시간 확보, 추가 업무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영국 교육부에서는 맞춤형 학습을 위한 요건을 조사했는데, 양질의 수업, 목표설정과 추적, 집중 평가, 중재, 그룹화, 학습 환경, 교육과정 재구성, 확장된 교육과정,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 반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 Families, 2008).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프로그램 관련 연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그간 주목 받아 온 것은 교수-사서간의 협력이다. Mitchell 외(2011)는 교수가 도서관 서비스를 학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달자(conduit)'임을 역설하면서, 성공적인 강의연계교육을 위한 관건은 교수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도서관의 역할과 서비스를 교육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Ivey(2003)는 사서와 교수간의 성공적인 협력을 이루는 요소로, 공유된 목적, 상호 간의 존경·인내·신뢰, 서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업무 능력, 지속적인 상호 의사소통 등을 제시하였다.

국내 문헌을 보면, 최은주와 박남진(2005)은 정규 정보이용교육 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컴퓨터활용능력과 도서관 지식이 정보활용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에게 정보이용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서는 교수와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성은과 이명희(2007)는 정보활용교육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대학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의 정보활용능력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 높은 교육적 효과를 보여 주었다. 이 연구는 특히 교육내용을 개인별 특성과 학년 차를 반영한 단계별 모듈화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정규교과과정과의 연계를 위해 사서와 담당 교수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기존의 이용자교육 방식에서 탈피할 것이 일관되게 주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이용자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방법이면서 교육의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교과과정을 매개로 한 교수-사서의 협력 역시 그간 꾸준히 강조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각 대학도서관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대한 부응으로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적극 도입하고 그 효과적 운영방안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를 위한 토대 작업으로,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또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계 요소를 규명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 4년제 대학도서관의 맞춤형 이용자교육 운영과 관련된 국내 현황을 조사하고 그 활성화 조건들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 대상을 파악하기 위

하여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2)에서 발간하는 『2012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에 제시된 전국 4년제 대학도서관 명단, (2) 국·공립 대학도서관 협의회 명부, (3)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에 명부에 제시된 도서관 리스트를 함께 참조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은 전국 4년제 대학의 중앙도서관 총 206개관으로 집계되었고, 이를 전수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선정된 206개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내용 분석하는 한편, 도서관 이용자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현황 파악을 위하여 선정된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토대로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시행 여부, 해당 교육의 명칭, 교육 담당자 배치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둘째,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전국적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사용할 설문지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로, 도서관 홈페이지에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한 곳 중에서 8인을 선정하고 동의를 얻은 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면담은 소속 도서관의 맞춤형 이용자교육 현황, 맞춤형 이용자교육 관련 경험 및 개인적 견해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웹기반의 온라인 설문지는 사서 5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pre-test)를 거치 후 최종 확정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2013년 8월 27일부터 2013년 9월 11일까지 약 2주 동안 전국 4년제 대학의 중앙도서관 206개관의 사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제공하는 도서관의 경우는 맞춤형 이용자교육 담당사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이용자교육 담

당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지 배포 전에 담당 사서에게 전화하여 참여를 요청하였고 참여 의사를 밝힌 사서들에게 이 메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총 206개관 중 149개관의 담당 사서가 설문에 참여함으로써 72.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설문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설문조사의 내용과 대학도서관의 통계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분석 목적별로 적합한 기술통계분석 및 다중상관분석 등 추론통계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4. 결과 분석

4.1 맞춤형 이용자교육 도입 현황

조사 대상인 총 206개 4년제 대학 도서관 가운데 본 연구에 참여한 149개관을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도입하여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은 94개관(63.1%)이며 나머지 55개관(36.9%)은 아직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도입한 도서관과 그렇지 않은 도서관을 자료구입비 예산, 소속대학 규모, 사서 수 등 도서관의 기본 여건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자료구입비 예산을 비교한 결과,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의 예산이 시행하지 않는 도서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

〈표 1〉 맞춤형 이용자교육 시행도서관과 미시행도서관의 특성

도서관 기본 여건		시행도서관(N=94)		미시행도서관(N=55)	
		도서관수	백분율(%)	도서관수	백분율(%)
자료 구입비 예산	1억 미만	7	7.4	12	21.8
	1억 이상 - 5억 미만	24	25.6	23	41.8
	5억 이상 - 10억 미만	19	20.2	10	18.2
	10억 이상 - 20억 미만	16	17.0	8	14.6
	20억 이상	28	29.8	2	3.6
대학 규모 (재학생수)	A그룹(재학생수 25,000명 이상)	13	13.8	0	0
	B그룹(20,000명 이상 - 25,000명 미만)	8	8.5	0	0
	C그룹(15,000명 이상 - 20,000명 미만)	11	11.7	4	7.3
	D그룹(10,000명 이상 - 15,000명 미만)	14	14.9	10	18.2
	E그룹(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28	29.8	11	20.0
	F그룹(5,000명 미만)	20	21.3	30	54.5
전체 사서 수 (정규, 비정규)	0명	1	1.1	3	5.5
	1명 이상 - 5명 미만	19	20.2	23	41.8
	5명 이상 - 10명 미만	20	21.3	18	32.7
	10명 이상 - 20명 미만	31	32.9	9	16.4
	20명 이상 - 30명 미만	9	9.6	2	3.6
	30명 이상 - 40명 미만	8	8.5	0	0
	40명 이상	6	6.4	0	0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통계시스템, <http://www.rinfo.kr/>

다. 예산이 20억 이상으로 그 규모가 큰 도서관 가운데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시행하는 도서관이 29.8%인 반면, 미시행도서관은 단지 3.6%에 불과했다. 반면, 예산이 5억 미만인 작은 규모의 도서관 가운데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시행하는 도서관은 33%, 시행하지 않는 도서관은 그 두 배에 가까운 63.6%에 달하고 있었다.

대학도서관이 속한 모기관의 규모를 그 재학생 수를 중심으로 파악해 보았을 때 역시, 맞춤형 이용자교육 시행도서관은 미시행 도서관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의 도서관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미시행 도서관의 54.5%가 재학생 5,000명 미만인 가장 작은 규모의 대학 도서관이었던 반면, 시행도서관의 경우는 21.3%에 불

과했다. 미시행 도서관 가운데 재학생 20,000명 이상은 전무했던 반면, 시행도서관의 22.3%가 재학생 20,000명 이상의 대학이었다. 결국, 맞춤형 이용자교육은 재학생 규모가 큰 도서관일수록 더 많이 시행되고 있었다. 사서 인원 수 측면에서도 미시행도서관은 시행도서관보다 전체 사서 수가 적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사서 수가 10인 이상인 도서관의 경우, 시행 도서관과 미시행 도서관을 비교해 보면 각기 57.4%와 20%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종합하면,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은 시행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에 비해 예산, 재학생 수, 사서 인력 등 모든 측면에서 그 규모가 더 큰 경향을 보였다.

4.2 맞춤형 이용자교육 운영 현황

현재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94개관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도서관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교육도입시기, 담당사서, 교육유형, 전공별 신청비율, 교수방법, 주요 교육내용, 홍보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55개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먼저, 국내 대학도서관의 맞춤형 이용자교육 도입 시기를 조사한 결과, 2006년-2010년 사이에 도입한 도서관이 46개관(48.9%)으로 가장 많았다. 2011-2013년에도 22개관(23.4%)이 도입함으로써 지난 10여년간 맞춤형 이용자교육이 꾸준히 도입, 운영되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의 해당업무 담당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인 경우가 54개관(57.4%)으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이 21개관(22.3%)이었다. 업무담당 사서 수를 보면, 1인인 도서관이 51개관(54.3%)으로 가장 많았고, 2인인 도서관이 20개관(21.2%)으로 조사되어, 참여한 도서관의 75% 이상이 1-2인의 사서로 이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

맞춤형 이용자교육이 현재 어떤 유형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가장 보편적인 것은 교수 요청에 의한 강의연계교육으로 94개관 가운데 80개관(85.1%)에서 이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대학원생 요청의 개별교육이 56개관(59.6%), 학부생 요청의 개별교육이 39개관(41.5%)이었다. 요약하면, 강의연계로 제공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교육유

형이었고, 개별교육의 경우에는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으로부터 더 많은 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가장 많이 요청하는 전공 분야는 사회계열(37.2%)이었고, 의학을 포함한 이공계열(22.3%), 인문계열(21.3%), 예체능 및 기타(19.2%)순으로 나타나 여러 학문 분야에서 비교적 고르게 요청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교수 방법을 살펴 본 결과, 강의, 검색시연, 실습 등을 다양하게 조합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강의식 수업과 검색시연을 겸하는 형태였는데, 응답도서관 94개 가운데 50개관(53.2%)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강의식 수업에 검색시연과 실습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는 28개관(29.8%), 강의와 실습만 겸하는 도서관은 6개관(6.4%)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권장되는 실습(이성흠, 이준, 2009)을 제공하는 도서관은 34개관(36.2%)에 그치고 있었다.

다음으로 신청자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신청하는지 알아보았다. <표 2>는 대학원생과 학부생의 주요 교육신청 내용을 비교한 결과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보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대학원생은 주제별 정보원 소개(68.7%)를 가장 많이 요청한 반면, 학부생은 소장 자료의 이용방법 안내(96.4%)를 가장 많이 요청하고 있었다. 두 집단간 비교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학원생이 학부생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주제로 교육 내용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원생의 경우, 참고 문헌 작성법(42.2%), 주제 분야의 최신정보,

〈표 2〉 교육대상별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신청 내용*

교육신청내용	대학원생(N=83)			학부생(N=84)		
	신청자수	백분율(%)	순위	신청자수	백분율(%)	순위
주제별 정보원 소개	57	68.7	1	44	52.4	3
검색 기능 및 검색 기법	48	57.8	2	67	79.8	2
참고문헌 작성법	35	42.2	3	9	10.7	6
주제의 최신정보, 연구동향 파악 방법	32	38.6	4	3	3.6	7
소장 자료의 이용방법 안내	27	32.5	5	81	96.4	1
논문과 리포트 작성법	26	31.3	6	21	25.0	4
인용문 작성방법과 표절문제	11	13.3	7	3	3.6	7
사서에게 도움 요청할 권리와 방법	10	12.0	8	16	19.0	5
정보윤리 및 저작권 이해	3	3.6	9	1	1.2	9
정보의 품질 평가(예: 신뢰성, 정확성)	1	1.2	10	1	1.2	9

*복수응답가능

연구동향 파악 방법(38.6%), 인용문 작성방법과 표절문제(13.3%) 등의 다양한 교육내용을 요청하고 있었다. 반면, 학부생들의 해당 내용에 대한 요청이 각각 10.7%, 3.6%, 3.6%에 머무름으로써, 대체로 소장 자료의 이용방법 안내 등 특정 내용에 편중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각 대학도서관에서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홍보방법과 사서들

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홍보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실제 활용되고 있는 홍보방법과 사서들이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홍보방법 간에 차이가 있음을 〈표 3〉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3〉을 보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68개관(72.3%)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홍보방법으로 나타났으나, 사서의 인식을 보면 단

〈표 3〉 시행 홍보방법 및 효과적인 홍보방법 인식

(N=94)

홍보방법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홍보 방법*			사서가 인식하는 효과적 홍보 방법**		
	응답수	백분율(%)	순위	응답수	백분율(%)	순위
도서관 홈페이지	68	72.3	1	11	11.7	2
교수진과의 협력 및 교류	56	59.6	2	60	63.8	1
다른 이용자교육에서 안내	52	55.3	3	6	6.4	4
이메일	40	42.6	4	4	4.3	5
구두 정보(입소문 등)	19	20.2	5	7	7.4	3
교내에 포스터 등의 홍보물	15	16.0	6	2	2.1	6
기념품 배포	13	13.8	7	2	2.1	6
SNS	11	11.7	8	2	2.1	6
홍보하지 않음	5	5.3	9	-	-	-
기타	9	9.6	9	-	-	-

*복수응답, **단일응답

〈표 4〉 맞춤형 이용자교육 시행의 핵심요인*

(N=94)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실시케 한 핵심요인	응답자 수	백분율(%)
이용자의 요청	47	50.0
사서의 투철한 서비스 정신	40	42.6
교수진과의 긴밀한 협조	31	33.0
교육에 관한 사서간의 협력 및 공감대	19	20.2
DB, 전자자원 등 풍부한 장서	17	18.1
사서의 교육 기술 및 능력	15	16.0
지속적인 사서 교육 지원	4	4.3
교육을 담당할 충분한 인력	3	3.2
주제 분야에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서	2	2.1
잘 갖춰진 교육 인프라 시설	1	1.1
기타	4	4.3

*복수응답가능

11명(11.7%)만이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 인식하여, 둘 간에 차이가 큼을 보여 주었다. 실제로 사서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홍보 방법은 교수진과의 협력 및 교류(60명, 63.8%)로, 이 방법은 전체 56개관(59.6%)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서들은 교수진과의 협력 이외의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사서들이 교수와의 협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현재 국내 맞춤형 이용자교육이 대부분 강의연계교육으로 제공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데 공헌한 핵심요인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귀 도서관에서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한 핵심요인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였고, 조사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4〉에 집계된 바에 따르면, 맞춤형 이용자교육 시행을 가능하게 한 상위 세 요인은 '이용자의 요청'(50.0%), '사서의 서비스 정신'(42.6%), '교수진과의 긴밀한 협조'(33.0%) 순이었다. 이

들 요인은 이 교육을 시행케 하는데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면서, 추진력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교육 인프라 시설', '풍부한 주제 지식', '풍부한 교육담당 인력', '지속적인 사서 교육지원' 등은 크게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맞춤형 이용자교육 시행에 필요한 물적 기반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용자의 요청, 교육서비스에 대한 의지, 교수와의 긴밀한 협조가 있다면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교육을 도입하고 또 유지해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3 맞춤형 이용자교육 활성화 정도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들 간에도 각자의 여건에 따라 그 활성화 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현재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94개관을 대상으로 그 활성화 정도를 알아보았다. 활성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맞춤형 이용자교육 '평균 시행 횟수', '평균 참

〈표 5〉 맞춤형 이용자교육 활성화 지표

활성화 지표		응답자수	백분율(%)	활성화 지표		응답자수	백분율(%)
학기당 시행횟수 (평균=2.47 표준편차=1.55 N=94)	5회 미만	30	31.9	학기당 참여자 수 (평균=4.00 표준편차=2.04 N=94)	50명 미만	33	35.1
	5-10회 미만	21	22.3		50-100명	12	12.8
	10-30회 미만	29	30.9		100-150명	13	13.8
	30-50회 미만	7	7.4		150-300명	15	15.9
	50회 이상	7	7.4		300명 이상	21	22.3
수업연계교육 재신청률 (평균=3.48 표준편차=1.30 N=90)	매우 낮다	5	5.6	그룹교육 재신청률 (평균=2.64 표준편차=1.33 N=83)	매우 낮다	7	8.4
	낮다	6	6.7		낮다	14	16.9
	보통이다	28	31.1		보통이다	39	47.0
	높다	29	32.2		높다	19	22.9
	매우 높다	22	24.4		매우 높다	4	4.8

여자 수', '재신청률'을 사용하였다.

먼저 활성화의 첫째 지표로, 맞춤형 이용자 교육의 학기당 평균 시행 횟수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학기당 10회 미만으로 교육을 시행한 곳이 51개관(54.2%), 30회 이상은 14개관(14.9%)으로, 도서관별로 교육 시행횟수에 큰 차이를 보였다(평균=2.47; 표준편차=1.55; N=94). 두 번째 지표인 학기당 교육 참여자 수 역시 5개 그룹으로 나누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평균=4.00; 표준편차=2.04; N=94). 분포도를 살펴보면, 학기당 50명 미만인 경우가 33개관(35.1%)으로 가장 많았고, 300명 이상은 21개관(22.3%)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교육 참여자 수의 차이가 큰 것은 대학마다 실제 교육의 활성화나 강의연계교육 시행 정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대규모 강의와 연계하여 교육을 시행할 경우, 수강생 수가 참여자 수로 집계되므로, 강의연계교육이 많을수록 참여자 수 역시 교육 횟수에 비해 훨씬 크게 집계된다. 세 번째 지표인 교육 재신청률을 5점 리커트타입 척도(1=매우 낮다; 5=매우 높다)로 측정한 결과, 강의연

계교육(평균=3.48; 표준편차=1.30; N=90)이 개별교육(평균=2.64; 표준편차=1.33; N=83)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활성화지표를 사용하여 어떤 특성을 가진 도서관에서 맞춤형 이용자교육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도서관 자원 수준이나 사서의 특성과 활성화수준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이 때 도서관 자원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자료 구입비 예산, 대학 규모, 전체 사서 수, 맞춤형 이용자교육 담당 사서 수 등을 살펴보고, 사서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으로는 학력, 전공, 근무경력, 해당 교육 담당 기간 등을 살펴보았다.

〈표 6〉에 나타난 분석결과를 보면, 도서관 자원과 교육 활성화를 나타내는 변인간에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 < .01$, $p < .05$). 교육 시행횟수가 많은 도서관일수록 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r = .27$; $p < .01$), 대학 규모($r = .38$; $p < .01$), 전체 사서 수($r = .38$; $p < .01$), 교육 담당 사서 수($r = .36$; $p < .01$)가 많았다. 교육 참여자 수 역시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교육 참여자가 많은 도

〈표 6〉 교육활성화와 도서관 자원과의 상관관계

		활성화 지표			
		시행횟수	참여자 수	강의연계 재신청	개별교육 재신청
도서관자원	예산	.27**	.26**	.36**	.20
	대학 규모	.38**	.34**	.32**	.21*
	전체 사서 수	.38**	.36**	.24*	.19
	담당 사서 수	.36**	.31**	.05	.09
사서의 특성	학력	-.08	.17	.29**	.20
	전공	-.66	.15	.17	.17
	근무경력	.15	.24*	-.12	-.04
	담당기간	.09	.08	.10	.12

*p<0.05, **p<0.01

서관일수록 예산, 대학규모, 전체 사서 수, 담당 사서수가 많은 도서관이었다(p<0.01). 강의연계교육의 재신청률이 높은 도서관일수록 그 예산, 대학의 규모, 전체 사서 수가 많았으나, 담당사서 수와는 무관했다. 그러나 개별교육의 경우, 재신청률이 높은 도서관일수록 대학규모(r=.21; p<.05)가 컸으나, 예산이나 사서수와는 무관했다. 활성화 4개 지표를 종합해 보면, 현재 대학도서관의 맞춤형 이용자교육은 예산, 대학규모, 사서 수가 더 많은, 즉 자원을 더 많이 투입하는 기관에서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경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개별 사서의 특성과 교육 활성화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크게 없었다. 다만 사서의 학력이 높을수록(r=.29; p<.01) 재신청

률이 높았고, 사서의 근무경력(r=.24; p<.05)이 오래될수록 교육 참여자 수가 많은 등, 부분적으로만 상관관계가 보였다.

4.4 미시행 도서관의 특성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현재 제공하고 있지 않은 대학도서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도서관의 이용자교육 혹은 참고봉사를 담당하는 사서를 대상으로 향후 도입의사와 시행 계획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맞춤형 이용자교육 도입의사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55명 가운데 41명(74.5%)이 앞으로 해당 교육을 도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32명

〈표 7〉 미시행 도서관의 맞춤형 이용자교육 도입의사 및 실시계획

(N=55)

	있음		없음	
	응답수	백분율(%)	응답수	백분율(%)
도입의사	41	74.5	14	25.5
실시계획	32	58.2	23	41.8

〈표 8〉 맞춤형 이용자교육 미시행 이유

(N=55)

미시행 이유	응답수	백분율(%)
교육을 담당할 사서 인력 부족	24	43.6
이용자 요구 부재	10	18.2
교육 장소, 기기 등 인프라 부족	5	9.0
다른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	3	5.5
교수진과의 협력 기반 부족	3	5.5
예산 부족	3	5.5
맞춤형 교육에 대해 몰랐음	2	3.6
다른 업무에 비해 낮은 우선 순위	1	1.8
교육을 담당할 사서 역량 부족	1	1.8
기타	3	5.5

(58.2%)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의 반 이상이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맞춤형 이용자교육 도입에 장애가 되고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귀 도서관에서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였으며, 결과는 〈표 8〉과 같다.

조사결과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을 담당할 사서 인력 부족'(43.6%)이었고, 그 다음으로 '이용자 요구 부재'(18.2%)였다. 소수 의견으로 '교육장소, 기기 등 인프라 부족'(9.0%), '다른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 '교수진과의 협력 기반 부족', '예산 부족' 등이 각각 5.5%였다. 이 결과는 인력 부족과 이용자의 요구 부재가 현재 맞춤형 이용자교육 도입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살펴본 연구로,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현황과 제반 여건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국내 대학도서관 환경에 맞는 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현황을 논의하면서,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현재 국내 전체 4년제 대학의 중앙도서관 206개관에서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얼마나 도입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조사에 참여한 149개의 대학도서관 가운데 94개관(63.1%)이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 도입 시기는 2006년 이후가 가장 많았으며, 현재까지도 꾸준히 도입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현재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55개관(36.9%)의 특

정을 보면, 시행도서관에 비해 도서관예산, 소속 대학 규모, 재학생 수, 사서 인력 등 모든 측면에서 주로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전체 206개 4년제 대학 도서관 중에서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57개의 도서관이 대체로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도서관은 더 증가하여 대략 전체 도서관의 50%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도서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교육을 담당할 사서의 부족을 꼽았다. 이 같은 사실은 사서 인력 수급이 서비스 도입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의 반 이상(51개관; 54.3%)이 단 한명의 사서만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도서관의 핵심 사명인 구성원의 교육지원 및 제공에 충분한 교육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이용자 요구의 부재로 나타났는데, 흥미로운 것은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많은 도서관들이 그 교육을 가능케 한 핵심요인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언급했다는 역설이다. 현재 이용자의 요구가 없어 교육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도서관들은 과연 이용자의 요구가 실제로 부재한 것인지, 아니면 이용자의 요구를 개발하거나 파악해 내는데 도서관이 미온적이거나 혹은 실패한 것은 아닌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사서의 인력 수급문제는 맞춤형 이용자교육 도입이나 개선 측면에서 가장 주목하여

보아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전문 사서의 배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대학 차원의 개선도 물론 필요하지만, 도서관 차원에서도 창의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맞춤형 이용자교육에 배정된 사서인력 현황과 관련하여, 시행도서관의 반 이상이 한 명의 사서만 배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인력 배정 또는 직무분담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학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이용자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사서가 이용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그 분야 핵심문헌을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전체 전공 분야에 단 한 명의 사서가 투입하는 상황에서는 그 교육의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사서가 직무의 일부로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담당하고 몇 개의 유사 학문을 묶어 주제 영역을 분담함으로써, 주제 전문성을 점진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직무배치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한 핵심 요인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도서관이 이용자의 요청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 정신, 교수진과의 협조, 교육 인프라, 사서의 역량 등을 지목했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맞춤형 이용자교육 운영의 중심은 '사서'이며, 한 명의 사서라도 봉사 정신과 해당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입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교육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많은 대학도서관이 담당 사서의 교육 의지와 이용자 봉사정신을 토대로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시작하였음을 보고함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실행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또 다른 요인은 교수진과의 협력과 교류였다. 실제로 교수진과의 협력은 본 연구 결과 여러 부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교수 요청에 의한 강의연계교육을 맞춤형 이용자교육으로 시행하는 도서관이 전체의 85.1%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에 참여한 사서의 63.8%가 '교수진과의 협력 및 교류'를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도서관의 59.6%가 이를 홍보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전달자로서 교수진의 역할을 강조했던 Mitchell 외(2011)의 연구 결과가 본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는데, 맞춤형 이용자교육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이 교수진이었으며, 그들이 중심이 된 강의연계교육의 경우, 학생의 개별적 요청에 의한 교육보다 재방문율이 더 높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더 확대하려는 도서관에서는 교수진과의 협력 전략을 보다 더 창의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의연계교육은 개별교육보다 아직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도입하지 않은 도서관들이 도입초기에 이용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는데 더 유리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강의연계교육이 현재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므로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수와의 교류를 통해 강의연계교육이 한 번만 들어지면 그것이 토대가 되어 지속,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개별교육에 비해 강의연계교육의 재신청률이 높았다는 본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또 강의

를 수강하는 모든 학생이 교육 대상자가 되므로 시행 횟수에 비해 많은 참여자가 확보되는 점도 장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수진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강의연계교육을 설계하고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전달하는 교수법과 관련된 본 연구결과를 보면, 응답한 도서관의 반 이상(53.2%)이 강의식 수업과 검색시연을 겸하고 있었다. 주목할 사실은 현재 맞춤형 이용자교육에서 이용자가 직접 검색 실습을 하는 경우가 단 36.2%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이다.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것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교육효과가 높은 것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 밝혀진 바이다(이성흠, 이준, 2009). Smaldino, Russell, Heinich, Molenda의 ASSURE 교수설계 모형은 교수과정에서 효과적인 교수매체 활용을 강조한 것으로, 학습자의 참여 유도(required learner participation)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사서의 시연보다는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실습활동을 더 확대해야 하는데, 문제는 대개 도서관의 시설부족으로 인해 실습이 쉽지 않다는 점과 한정된 수업시간 내에 많은 수업 활동을 구성해야 한다는 시간제약이다. 이는 교수경험이 많지 않은 사서들에게 특히 더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Kirk, 1999). 따라서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실습실 확보와 효과적인 수업시간 관리에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별교육의 경우, 학부생(41.5%)보다 대학원생(59.6%)에게서 더 많은 요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수

준 높은 도서관과 정보활용능력이 대학원생들에게 보다 더 필요한 사실을 감안할 때, 예측되는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두 집단이 요청한 교육내용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원생의 경우는 주제별 정보원 소개(68.7%), 학부생의 경우는 소장 자료의 이용방법(96.4%)을 가장 빈번히 요청하고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학부생의 경우 소장자료 이용방법, 검색 기법, 주제별 정보원 소개 등을 제외한 다른 내용에 대한 교육요구가 많지 않았다. 반면, 대학원생은 훨씬 다양한 교육내용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정보활용교육과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그룹간 차이를 감안하면,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수준별로 세심하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김성은, 이명희, 2007). 이를 위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참고 및 이용자 교육 사서가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분담하는 한편, 주제 지식, 관련 정보원, 교수법 등 다양한 학술 능력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부생들의 편중된 교육내용 요청과 관련하여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학생들이 신청한 내용을 보면, 주로 당면 과제나 당장의 필요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에 집중되는데, 이렇게 요청한 내용만을 가르친다면 정보활용능력 전 영역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부생들을 위한 교육 내용을 설계할 때는 요청되지 않은 영역도 함께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균형 잡힌 정보활용능력을 지닐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이용자교육이 활발히

제공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특성을 통해, 그 성공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학생 수, 도서관예산, 사서 수 등의 측면에서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더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었다. 반면 석사학위 취득, 문헌정보학 이외의 학위취득 여부, 근무경력 및 업무 담당 기간 등 개별 사서의 특성은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활성화 여부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 교육활성화가 사서의 교육적 배경이나 경험 등 사서 개인의 역량보다 도서관의 가용자원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서의 능력이나 도서관의 인프라보다 사서의 투철한 서비스 정신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게 한 핵심 요인이었다는 본 연구결과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아직까지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위한 제 여건이 국내 대학도서관에 조성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서들은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도입가능케 한 요건으로 물리적 여건보다 이용자의 요청, 서비스 정신, 교수진과의 협력 등의 개인의 의지적 측면을 중요하게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서관 인프라나 사서의 능력이 교육에 불필요하다기 보다는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결과를 보면, 사서 개인의 역량은 그의 전공, 학위, 경험 등 주로 가시적 측면만이 아닌, 봉사정신, 의지도 포함하며, 실제로 후자가 현장에서는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서의 역량과 활성화 간의 관계를 주로 가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사서의 의지나 봉사철학 등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서 개인의 역량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맞춤형 이용자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149개 도서관 가운데 60% 이상이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감안해 볼 때, 그간 이 주제와 관련된 실증연구가 아직 시도된 바 없었다는 점은 다소 의외이다. 아직 국내 문헌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맞춤형 이용자교육에 대

해, 국내외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국내 4년제 대학의 중앙도서관을 전수 조사하여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시도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교육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인식되어 온 맞춤형 이용자교육을 한국의 대학도서관에서 더 발전적으로 도입·정착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전략과 방안을 구상해야 할 단계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첫 걸음이 되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는데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나원 (2008). 이용자 행태 및 요구 분석을 통한 의학도서관 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성은, 이명희 (2007). 대학생을 위한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91-115.
- 김태경 (2005). 특정주제중심의 도서관 이용자교육. 한국비블리아학회 발표논집, 12, 51-64.
- 김혜진, 목희정, 홍정임, 남궁신아 (2012). 맞춤형 영양교육이 철결핍성 빈혈환자의 임상 지표 및 영양섭취 상태에 미치는 효과.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18(1), 72-80.
- 남재연 (2012). 맞춤형교육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활용. 2013년도 대학도서관 학술서비스 기획 및 홍보과정 교육자료집, 3-42. Retrieved from http://www.keris.or.kr/data/dt_research.jsp?selSearchMenu=0&search_type1=8272193000000000&search_type2=name&srchCont=&chk1=&sw=&ix=21504&bbsid=board04&gbn=view [인용 2014.6.22].
- 박성익 (2008). 개별화학습의 전망과 과제. 교육방법연구, 20(1), 1-23.
- 백향기 (2001). 대학도서관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2(1), 43-64.
- 윤희운 (2013). 대학도서관경영론. 대구: 태일사.
- 이성흠, 이준 (2009). 교수방법 및 교육공학: 의사소통, 교수설계, 그리고 매체활용. 과주: 교육과학사.
- 이제환 (2011). 한국 도서관계의 이용자교육: 현황과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3-27.

- 이현지, 김혜영 (2012). 비만 식습관 개선과 맞춤형 식생활 교육. 한국식품조리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39.
- 정미정 (2014). 대학도서관 이용자 맞춤형 교육의 효과적 도입과 운영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최승현, 조성민, 류현아 (2012). 초등 수학 학습 부진아 지도를 위한 맞춤형 학습 자료 개발 연구. *初等數學教育*, 15(2), 135-145.
- 최은주, 박남진 (2005).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규 교과목 정보이용 교육 수강생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2(4), 153-172.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2). 2012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08). *Personalised learning: A practice guide*.
- Fleming, H. (1990). *User education in academic libraries*. London: Library Association Publish.
- Ivey, R. (2003). Information literacy: How do librarians and academics work in partnership to deliver effective learning programs? *Australian Academic & Research Libraries*, 34(2), 100-113.
- Kappus, T., Jenks, K., & Pauw, A. (2011). Can you meet with me on friday?: Personalized library instruction by appointment. *Alki*, 27(3), 8.
- Keller, J. M. (1979). Motivation and instructional design: A 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Instructional Development*, 2(4), 26-34.
- Kirk, Thomas G. (1999). Course-related bibliographic instruction in the 1990s. *Reference Services Review*, 27(3), 235-242.
- Mitchell, M. S., Comer, C. H., Starkey, J. M., & Francis, E. A. (2011). Paradigm shift in reference services at the Oberlin College Library: a case study.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51(4), 359-374.
- Oberman, C. (1998). Why we need a national information literacy institute. *Theory & Practice*, Twenty-Fifth National LOEX Library Instruction Conference. Ed. Linda Shirato & Elizabeth R. Bucciarelli. Ann Arbor: Pierian Press, 1-7.
- Rader, H. (1995). Information literacy and the undergraduate curriculum. *Library Trends*, 44(Summer), 270-271.
- Tomlinson, C. A. (2005). Grading and differentiation: Paradox or good practice?. *Theory into Practice*, 44(3), 262-269.
- Winner, M. C. (1998). Librarians as partners in the classroom: an increasing imperative. *Reference Services Review*, 26(1), 25-29.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Choe, Seung Hyun, Cho, Seong Min, & Ryu, Hyun Ah (2012). A study on development of personalized learning materials for underachievers in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 of Primary School Mathematics*, 15(2), 135-145.
- Choi, Eun-Ju, & Park, Nam-Jin (2005).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on information literacy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4), 153-172.
- Jung, Mijung (2014). Strategies for the effective adoption and delivery of customized bibliographic instructions in academic librar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ye Jin, Mok, Hee Jung, Hong, Jeong Im, & Namgung, Sin A (2012). Effects of custom nutrition education on dietary intakes and clinical parameters in patients diagnosed with iron deficiency anemia. *Journal of the Korean Dietetic Assosiation*, 18(1), 72-80.
- Kim, Na Won (200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user instruction programs in medical libraries through analyzing user behaviors and nee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ung-Eun, & Lee, Myeong-Hee (2007).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3), 91-115.
- Kim, Tae Gyeong (2005). A study on library instruction for a specific subject. *Proceedings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nference*, 12, 51-64.
-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12). 2012 statistical analysis of academic libraries. Seoul: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Lee, Hyeonji, & Kim, Hyeyeong (2012). Improving dietary habits of the obesity through the customized dietary education.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of Food & Cookery Science*, 2012, 139.
- Lee, Jehwan (2011). User education in Korean libraries: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3-27.
- Lee, Seongheum, & Lee, Jun (2009). *Instructional methods and educational technology: Communication, instructional design, and utilization of technologies*. Paju: Kyoyookbook.
- Nam, Jae yeon (2012). A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library services using customized

bibliographic instructions. Paper presented at the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Paik, Hang-Ki (2001). The analyses of customer satisfaction index on university library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2(1), 43-64.

Park, Seong-ik (2008). Retrospect and prospect of "individualized learning." *Education Methodology*, 20(1), 1-23.

Yun, Huiyun (2013). *Management for academic libraries*. Dae Gu: Taeilsa.